

하천 강씨집안이우다.
 바르연변에 큰 솟이
 하나 올라와시난
 봉가단
 두 일되 열나흘
 불을 솟아도
 물이 녹지 괴질 아니하난
 괴팡데레 갖다놓았수다.
 하룻밤은 꿈에 선몽하길
 “나는 수주용궁에서 오라시니
 잘 우양하민
 되로, 말로 분급하영
 부제로 맹글아 주키여.”
 하난,
 매양, 큰 일에
 잘 우양하엿수다.
 그영하난
 족손엔 서귀진 조방장,
 정의원, 대정원, 맹월만호,
 웅 큰 배실이 나고
 가문이 영창하엿수다.
 대왕청을 청하민
 군웅일월로 놓네다.

<성산면 신평리 여무 64세 홍매화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95.